

■광주시-美 대사관 주최 '아트 전시회 및 워크숍-亞문화전당 위한 데스크 포스'

“아시아 노래 모은 치유 음악제 어때요”

“각 나라에 파견할 ‘다문화 5·18 민주 사절단’을 육성하는 건 어떨까.”
“인권과 관련한 아시아 각국의 대표 노래들을 모아 치유음악제를 진행, 전당을 아시아 음악의 장으로 만드는 것도 의미있을 것 같다.”

“도시의 브랜드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광주가 되살려야 할 것과 기억할 것을 고민하면 좋겠다.”

오는 2014년 완공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전당 안에 과연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자체에서 다양한 공모 사업과 아카이브 작업들을 통해 콘텐츠 확보 작업에 나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문화 전문가들이 전당의 콘텐츠 등을 함께 고민해 본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다.

광주시와 주한미국대사관 공동 주최로 10~11일 이틀간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2012 아트 전시회 및 워크숍-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위한 데스크 포스’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당과 광주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깨리들’을 던져줬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

‘한국문화의 융합 컨퍼런스’(나건 홍익대 교수), ‘융합의 시대가 오고 있다-문명론적 진단’(김문조 고려대 교수) 등의 강연 후 25명의 참가자들은 5개의 주제로 팀을 나눠 이틀간 논의를 전개했다.

‘5·18과 민주화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 교류’에서는 ‘광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힐링을 통해 평화와 민주라는 아시아의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다. 또 5·18을 비롯한 민주화 관련 예술 작품의 경우 연구·영화 등을 넘어 코미디 등으로의 장르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아시아 각국의 단체장이 참여하는 광



광주시와 미 대사관이 주최한 ‘아트 전시회 및 워크숍’ 참가자들이 11일 광주문화재단 1층 갤러리 큐브 338에서 열리고 있는 최원정 작가전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다문화 5·18 민주사절단 구성 등 아이디어 제안

아시아 전역 예술영감 공급...토론내용 시에 전달

주 DAY 선포 등의 의견도 나왔다.

‘아트 퍼포먼스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아마추어와 즐거움이 중심이 된 ‘참여’형에서 한발 더 나아가 프로들의 내용이 쏠려 감동을 전달하고 영감을 얻어가는 ‘참관(參觀)’형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또 음악 페스티벌과 관련, 블루스와 산조, 포크음악에 미디어 아트 등을 접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아트 레지던시’ 주제에서는 작가들이 전당, 더 나아가 광주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하며 이곳에서 영감을 얻은 작가들의 활동에 따른 영향력을

통해 전당과 광주는 자연스레 전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그밖에 ‘어린이 문화예술 교육’을 논의한 팀에서는 대상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을 강조하며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부모’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프로그램 프로모션과 관객 개발’에서는 최근 인기를 모으는 오디오프로그램처럼 ‘꿈을 꾸는 모든 사람과 단체들’에게 광주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경연을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워크숍을 진행한 나건 교수는 각 팀들의

의견을 취합, “통합, 화합, 융합 등 이른바 ‘삼합’의 과정을 거쳐 광주와 아시아 문화전당은 아시아 전역에 예술의 영감(Inspiration)을 공급하는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페스티벌과 대중, 전문 예술가, 어린이예술교육을 통해 이런 가치들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워크숍을 기획한 이부연 열린 미국 대사관 지역총괄 담당관은 “이번 행사는 일방적인 강의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국에서 모인 문화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광주가 고민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와 관련한 생산적인 의견을 끄집어내는 데 의의가 있었다”며 “이번에 논의된 많은 내용과 결과물들은 체계적으로 정리해 광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며 앞으로 도 광주시와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 감성을 자극한다.

서울 출신으로 홍익대학교와 동대학원 조소과를 거쳐 뉴욕 스크 오브 비주얼 아트 대학원 순수미술과를 졸업한 최씨는 뉴욕, 커네티컷, 도쿄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뉴욕 블룸버그 본사 빌딩, 스와로브스키 뉴욕, 도쿄 마루우치 빌딩 등에서 열린 전시회에도 참여했다.

삼성, 뉴욕 스와로브스키, 런던 ARCHEUS 등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8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2-670-7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세계비엔날레 중심에 서다

27~31일 세계비엔날레대회

전 세계 비엔날레 관계자들이 광주에 모인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제 1회 세계비엔날레대회를 27~3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다고 11일 밝혔다.

비엔날레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린 지 117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비엔날레 재단의 제안을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받아들여면서 이뤄졌다.

‘중심의 이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비엔날레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독일 ‘가셀 도큐멘타’ 공동 기획을 맡았던 우테 메타 바우어 영국 왕립예술대학 학장과 중국 출신 후한루 전 이스탄불 비엔날레 감독이 기획을 맡았고 기조 발제와 각 도시의 비엔날레 사례 발표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현대 미술계 주요 인사와의 인터뷰를 담은 책을 펴낸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타임지 선정 세계 100대 지식인에 선정된 바



왕후이



상탈 무프

는 왕 후이 중국 칭화대 교수, 세계적 정치철학자인 상탈 무프 교수, 커뮤니케이션 학자로 널리 알려진 니코스 파파스테르기아 교수 등이 기조 발제에 나선다.

또 29일에는 상하이·이스탄불·리옹·타이베이·베를린·하바나·마니페스타·리버풀 비엔날레 대표 등 70여 명이 참여하는 ‘비엔날레 대표자회의’도 열려 전 세계 비엔날레 현황과 공동 목표, 교류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용우 광주비엔날레 대표는 “비엔날레에 관한 공동연구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회 창설 및 비엔날레 간 연대 강화 등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애들아 마리오네뜨 보러가자

문화재단, 인형극 600명 무료초청

‘마리오네뜨 공연 보러가자.’

광주문화재단은 페스티벌 ‘오!광주-정을 성숙제’(25~28일)에서 공연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쉐브론 궁 마리오네뜨 오페라인 형극 ‘마술피리’에 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족 600명(선착순)을 무료 초청한다.

이번 이벤트는 평소 관람 연령 제한으로 문화생활이 힘든 어린 자녀와 부모들에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인형예술축제 1위에 빛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쉐브론 궁 마리오네뜨 극장의 ‘마술피리’는 광주에서는 처음 공연되는 작품으로 쉐브론 궁 안에 설치된 무대와 똑같은 해의 공연을 이동 무대를 사용해 수준 높



은 레퍼토리와 사실적인 무대를 연출한다.

27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의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페스티벌 오! 광주 홈페이지(http://www.festival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70-476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250℃ 유리, 금속과 환상 만남

최원정전 눈길...18일까지

투명한 유리 속에 갇힌 금속 물고기가 다양한 이야기를 건넨다.

‘융합’을 주제로 열린 ‘2012 아트 전시회 및 아트 워크숍’에서 눈길을 끈 것은 갤러리 미디어 큐브 338(광주문화재단 1층)에

서 진행중인 설치작가 최원정씨의 작품전이다.

전시장을 메운 유리 조각 ‘숨쉬 수 없는’ 시리즈는 유리와 동판과 물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신비로운 형상들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1250℃가 넘는 액체 유리는 금속을 화석처럼, 보석처럼 다양한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그 액체 유리는 서서히 식어지면

서 기묘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또 다른 자태를 드러낸다.

비디오 영상 작품 ‘결국은’은 물과 기름이라는 어찌 보면 융합과는 가장 반대되는 상질을 통해 융합을 새롭게 해석한 작품이다. 가장 이질적인 물질로,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의 하나되려는 움직임은 포착해 냈으며 심장 박동을 연상시키는 소리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휴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 1등 맛집**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영주광역시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soojang.com